

## 발정 제어 방법과 계절번식이 한우의 차기수태에 미치는 영향

이명식, 최창용, 이지용, 조숙현, 박효숙, 손삼규, 문승주 \*

축산기술연구소 남원지소(Leems423@rda.go.kr)  
전남대학교\*

한우의 사육규모가 다두화된 농가에서 전년도 발정제어 처리에 따라 수태한 임신우의 분만내역과 차기번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수행하였다.

1. 발정유기방법별 계절번식처리우의 분만율은 PGF<sub>2</sub>α구에서 73%(73/100), PRID구에서 73.3%(22/30), CIDR구에서 76.6%(23/30), GnRH-PGF<sub>2</sub>α-GnRH처리구에서 81%(81/100)였으며 전체적으로 76.5%(199/260)로 나타났다.
2. 계절번식농가의 자연발정 수정구에서 암송아지는 23.9kg, 수송아지는 26.2kg인 반면에 발정유기구에서는 암송아지는 24kg, 수송아지는 24.9kg로써 생시체중에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4개월령 체중에서 자연발정 수정구에서 암송아지 72kg, 수송아지 75kg인 반면에 발정유기구에서는 암송아지 75.6kg, 수송아지 78.3kg으로 발육상에 특별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다두사육농가의 자연발정 수정구에서 송아지 육성율은 86.5%(251/290)이었으며, 발정제어처리구에서는 87.0%(175/201)로써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농가의 사육경험에 따라 6년 이상에서는 84.0%(105/125)였고, 10년 이상에서 88.4%(146/165)로써 사육경험이 많을수록 육성율이 우수하였다.
4. 발정유기방법별 분만후 발정재귀일수는 대조구에서 80.7일, PGF<sub>2</sub>α구에서 92.3일, PRID구에서 78.5일, CIDR구에서 64.5일, GnRH-PGF<sub>2</sub>α-GnRH 처리구에서 65.6일로 나타났고 분만후 수태일수는 대조구에서 137.1일, PGF<sub>2</sub>α구에서 147.6일, PRID구에서 141.3일, CIDR구에서 116.6일, GnRH-PGF<sub>2</sub>α-GnRH처리구에서 118일로 나타났으며 평균 134.3일이었다.

Key words) 한우, 발정동기화, 분만을, 생시체중, 발정재귀, 수태일수